

# 나주 영산포에 쾌속 유람선 뜬다

### 영산강호 시험운항중 왕건호보다 2배 빨라 황포돛배와 함께 새 명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륙 등대를 보유한 나주 영산포에서 쾌속 유람선(사진)이 운항을 시작한다. 지난 1977년 영산호 하구인 독 준공으로 중단됐던 내륙 뱃길이 복원된 지 38년 만에 현대식 유람선이 첫 투입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나주시는 14일 “상업운항선인 ‘영산강호’가 공식 운항을 앞두고 시험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영산강호는 길이 23m, 너비 5m, 48톤급 강선으로 관광객 정원은 80명이다.

1층 객실에는 현대식 화장실 등 각종 편의 시설과 간식을 판매하는 매점을 갖추고 있으며, 2층에 올라가면 영산강변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5노트(시속 26km)로, 현재 황포돛배로 운항 중인 97톤급 왕건호보다 2배 정도 빠르다. 지난 1월 나주시가 고흥의 한 조선소에 의뢰해 지난 건조를 마쳤으며, 국비 4억2000만원과 시비 2억8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영산강호는 시험 운항과 내·외부 단장



을 마치는 대로 영산포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정식 운항하게 되며, 주말에는 승선보 구간을 하루 세차례 정기 운항한다. 요금은 성인기준 편도 8000원(단체 20인 이상 7000원), 청소년 6000원이다.

영산강호의 취향으로 나주 영산포에서 운항중인 선박의 종류도 다양해 졌다.

현재 영산포구에서는 옛 추억을 간직한 황포돛배인 빛가람1·2호가 물역세 축제장과 노랑포를 오가고 있으며, 고려시대 건조선을 복원한 왕건호와 한옥 팔각지붕선이 멋스런 나주호는 영산포구~암암바위 절벽~다시면 회진리 천연염색문화관 구간을 각각 왕복 운항 중이다.

승선·체료료는 선박 종류에 관계없이 8000원이며, 만 6세 이하 유아는 무료다. 나주시민과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혁신도시 임직원은 50% 할인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항 내용은 영산포 선착장(061-332-1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함께 영산포구 등 나주시 전역이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면서 “나주읍성 복원사업 등과 연계해 나주를 전 국민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농업인 단체 등과 잇단 간담회...나주시 ‘소통 농정’ 강화

### 건의사항 수렴 농정 반영

나주시가 농업인 단체 등과 간담회에 나서는 등 ‘소통 농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나주시농어업협회의 2층 회의실에서 농업인과 농업분야 공무원 100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농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농업인과의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농업인 단체 임원과 농정심의회 위원 및 시민소통위원회 소관 위원들은 2016년 농정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농정에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또 국내 농업 동향과 전망 분석에 이어 지역 농정 및 연도별 농업분야 예산 현황, 농정분야 주요 성과 등 다양한 농업 정보를 교환하고,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신규 발굴 시책 등 당면 농정 현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주요 의견으로 ▲쌀 생산능력을 위한 토백 저울 및 저온 건조시설 지원 ▲농업농협 사일로 지원사업을 지자체와 농업



나주시가 지난 13일 나주시농어업협회의소에서 주요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농정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 공동 사업으로 확대 ▲2016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방향 마련 ▲유용미생물 생산 및 활용 사업확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나주배 고부가가치 제조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오갔으며, 축산분야 대표 브랜드 육성,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나주시는 앞으로 각 분야별 농업인 단체들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농업·농촌의 각종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갈 방침이다.

나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FTA 체결 및 쌀 시장 개방 등에 따른 어려운 농촌 현실 극복을 위해 농업인 단체 및 관련 종사자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농업의 활로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혁신도시 첫 중·대형 아파트 ‘대방엘리움’ 관심 집중

### 대방산업개발 765세대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첫 중·대형 평형 명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방노블랜드’로 전국 아파트시장에서 인기몰이중인 대방건설(도급순위 49위)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주)의 새로운 고급 아파트 프리미엄 브랜드인 ‘대방엘리움’<조감도>을 빛가람 혁신도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14일 대방산업개발(주)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에 첫 선을 보이는 ‘대방엘리움(Ellium)’은 Elegant(품격있는)+ium(공간접미사) 두 단어의 복합적인 의미가 결합돼 기존 ‘Noble Land’가 가지고 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품격과 가치를 더한 아파트 특화 프리미엄 브랜드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첫 공급되는 ‘대방엘리움’ 1, 2차는 C3블록(1차), B16블록(2차) 두 개 블록 765세대로 구성돼 있다.

C3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지하 1~지상 20층의 6개동이며, 전용면적별로는 116㎡A 208가구, 116㎡B 206가구 등 414가구다. B16블록은 지하 1층 ~ 지상 19층 6개동이며, 전용면적별로는 84㎡A 187가구, 84㎡B 164가구 등 351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대방엘리움’이 이번에 분양하는 중대형 평형대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동안 중대형 평형 거주를 희망해 오던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첫 중·대형 평형의 희소가치를 높여져 본 투자자들의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혁신도시 막바지 분양인 ‘대방엘리움’에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중심으로 혁신도시 내 분양 열기가 다시 한번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빛가람혁신도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별로는 116㎡A 208가구, 116㎡B 206가구 등 414가구다. B16블록은 지하 1층 ~ 지상 19층 6개동이며, 전용면적별로는 84㎡A 187가구, 84㎡B 164가구 등 351가구가 들어선다.

한 만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광주 수완지구에서 1~7차까지 성공리에 분양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브랜드 이미지까지 갖춘 대방노블랜드의 계열회사의 분양인데다, 혁신도시 내 최초로 공급되는 중대형평형의 매력도 있어 이미 대기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대방산업개발 관계자는 “올 초 진입 인구만 3000명이 넘어서는 등 인구 5만 명의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서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 타사 아파트 대비 우수한 품질 및 서비스 품목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대방엘리움을 통해 명품 프리미엄 아파트를 진수를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 내 빛가람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대방엘리움 모델하우스의 오픈일은 15일이다. 분양문의 1688-8500.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혁신도시 ICT 자바과정 수료생 8명 취업 ‘성과’

### ‘잡 매칭데이’서 채용

전남도와 순천시,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욱)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ICT JAVA과정 인력양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빛가람혁신도시 ICT JAVA과정 인력양성사업 전남동부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순천제일대학교에서 JAVA

개발자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취업 촉진을 위한 잡 매칭(job-matching)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동부권 소재 ICT업체인 (주)엘시스와 신명유아이(주), (주)엘티에스코리아, (주)한국공학기술연구원, 나래정보(주), 광양제철소 관련업체 등 6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수료생들과 일대일 현장 면접을 통

해 8명을 채용했다.

양수영 엘시스 대표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공사, 한전 KDN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기업의 ICT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향후 자바 2차과정 수료생에 대해서도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다시면 45개 마을회관 연중 태극기 휘날린다

### 이장단 운동 전개 눈길

나주시 다시면 이장단이 마을 회관에 연중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다시면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45개 마을회관, 연중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시면은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인 추

진을 위해 45개 마을회관 중 국기 게양대가 없는 22개 마을회관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시면 이장협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로 국기 게양대 설치가 완료되는 10월 중순부터 45개 마을회관에 연중 태극기가 휘날릴 예정이다.

김옥환 다시면장은 “이장단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면민들이 마을회관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나

라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란다”면서 “다시면은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고장인 만큼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근봉 다시면 이장단장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다시면 이장단이 참여한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이장단을 중심으로 각종 기념일마다 가가호호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당신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아린이(초등학생)	미취학아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월요일	14,500원	9,000원
		5,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